Title: Hwalssal
No. 41, April, 1954

8324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6
Copy

0647 R

MAR 31 1955

Please return to the Korean Unit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쏘베트국가의 배려

—오늘은 무엇을 샀소!
—무엇이던지 나의 마음에 드는 것이면 되다!

최한걸 그림

쏘련인민들의 물질적 복리의 부단한 향상

영광스러운 레닌—쓰딸린당의 령도밑에 공산주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고 있는 쏘련의 인민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인민소득의 장성은 쏘베트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 수준을 날로 가일층 제고시키고 있다

쏘베트 인민의 사회적리익과 행복한 생활에대하여 극진한 배려를 돌리고 있는 쏘련공산당과 쏘베트정부는 전후 1947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간에 식료품 및 공업상품의 소매가격을 벌써 6차나 인하 하였으며금번 또다시 식료품 및 공업품 국정소매가격의 새로운 인하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였다

4월 1일부터 실시된 전후 7차의 물가인하에 의하여 쏘련에서의 식료품 및 공업제품 가격은 5%—44, 5%대폭인하되고 있다

군빵 떡분 및 마까로니는 5%—15% 곡물 및 사료는 5%~8% 식료잡화는 10%—20%인하 되였다

직물은 10%—20% 기성복 메리야스 모자류는 7%—25%신발은 7%—20%인하하였고 잡화는 10%~20% 비누 및 향료—화장용품은 10%—20%인하되였다

문화용품 및 완구는 10—15% 도기 자기 및 유리제품은 10%—15%가정용품은 10%—20% 인하되였다

또한 건재는 10%—30% 성냥 및 석유제품은 20%—45,5% 스포츠용구 및 기타공업제품은 10%—15%인하 하였으며 의약품 및 보건 위생용품은 대폭 인하되있다

전후 계속적인 물가인하는 쏘련 인민들에게 막대한 물질적 혜택을 주고있다

국가 협동조합 상업망을 통하여서 만도 쏘련인민이받은 직접적 혜택은 1951년에 275억 루블리 1952년에 230억 루블리 이 였으며 1953년에는 꼴호즈 시장의 물가인하를 포함 하여 530억 루블리의 막대한 금액에 달한다

쏘베트인민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의 부단한 향상은 자본주의 제도에대한 쏘베트 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 쏘베트 국가의 위력의 가일층의 장성을 말하여준다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착취와 빈궁과 령락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써 다른 나라 인민들을 예속시키며 략탈하는 방법으로써 전쟁과 경제의 군사화의 방법으로써 최대의 리윤 획득을 목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정반대로 쏘베트 국가는 생산의 문화적 수준의 부단한 제고의 원칙에서 인민경제를 발전시킨다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의 올바른 정책과 고도로 앙양된 쏘베트 인민들의 공산주의 건설의 창조적 성과들에 의하여 쏘베트 국가는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되고있으며 인민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있다

쏘련 인민들은 자기들의 영웅적투쟁으로 전후 첫 5개년 인민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천하였으며 계속 제5차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1953년에 그들은 공업총생산량을 1952년에 비하여 12% 장성시켰는바 이는 1950년에 비하여 45%의 장성으로 된다

특히 그들은 쏘련공산당과 쏘련 정부가 취한 대중소비품생산의 급격한 발전과 곡물 및 기타 농산물들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제대책을 받들어 1953년에 대중소비품생산을 1952년에 비하여 13% 며증가 시켰으며 곡물 생산을 일부지역의 자연 조건이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1952년에 못지 않는 수확을 거두게하였다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과 보건사업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 하고 있는바 지난 4년간에 쏘련에서는 2백만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있는 약1만 1천개의 학교가 새로 건축되였으며 근로자 들을 위하여 총건평 1억 6백만평방메터의 주택이 건설되였다

쏘베트 인민들은 오늘 자기들의 창조적 로력의 거대한 성과를 보고있으며 불패의 위력을 가진 쏘베트 제도의 우월성을자랑 하고있다

쏘련에서의 계속적인 물가 인하는 다만 쏘련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을 더욱더향상시키며 유족하게 하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아니라 그것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 평화를 지향하고있는 모든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큰성과와 승리에로 고무추동하며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있어서 무한한희망과 승리에 대한신심을북돋아 준다

이와 동시에 쏘련에서의 물가인하는「공산주의 위협」의 광담을 떠버리면서 국제적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는 평화의 원수들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

조선 인민은 위대한 쏘련 인민의 행복한 생활과 그들의 헌신적인 창조적 로력투쟁의 성과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있게 내다보고있다

조선 인민은 애국주의적인 창조적 로력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조선인민의 행복 하고 유족한 생활을 반듯이 쟁취하고야 말것이다

(김 덕 인)

오늘 매개 당 국가 및 경제기관 일군들과 전체 근로자 들은 우리당 중앙 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 진술하신 경애하는수령 김일성 동지의 보고『산업운수 부문에서의 제결함들과 그를 시정하기위한 당 국가 및 경제기관들과 그일군들의 당면과업』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심오하게 연구하여 자기들에게 맡겨진 전후인민경제 복구 건설의 거대한 과업들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총궐기 하고 있다

백인균 그림

생산직장에서 지도수준을 제고하라!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있는 전후인민경제 복구발전사업은 그의 전망 그의 규모 그의 장비등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지 못한 웅대한 사업들이다

거대한 새로운 건설과생산—이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거대한 건설사업을 성취 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로동자들을 선두로한 전체 인민들이 헌신적 투쟁을 전개하며 그사업을 지도하는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생산을 지도할줄 아는 지식과경험을 더욱 풍부히 할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일군들은 이 요구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 하지않으며 생산 및 건설에대한 기술을 소유하려고 노력 하지않으며 하부실정을 모르고 되는 대로 일하는 형식주의적 관료주의적 사업방법을 지속 하고 있다'

그들은 모르면서도 아는체하며 거만하며 체면만 차리고 다니면서 경제건설에 대한 선진 과학기술과 광범한 로동대중의 산 경험들에서 허심하게 배우며 하지않고 있다

또한 그들은 경제건설 사업에 있어서 대중적 총명과 현명성을 토대로하는 집체적 지도가 우리사업에 있어서의 최고의 지도원칙으로 된다는것을 절실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고도의 책임성으로 사업을 처리하며 지도하지 못하고 남의 손을 빌려고만 하는 것이다 또한 선진과학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방식과 과거의 협소한 자기 경험에만 의존하여 사업하려 함으로써 주먹치기와 굴정작으로 사업을 지도할려고 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군들은 자리나 지키고 도장이나 찍는 「로보트」의 역할밖에 할수 없으며 그러면서도 자기의『위신』을 차리자면 관료주의적으로 지도할수밖에 다른 도리가없다

결국 이러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자들은 『한명의 로동자가 하루동안에 할일을 20명의 로동자가 드러붙어 반나절에하기만 하면 시간을 단축 하였다고 만세를 부르며 5,6명의 로동자가 2,3일 동안이면 완성할일을 100여명의 로동자가 하루에 하기만 하면 계획 초과완수라고 만세를부르고 있다』(김일성)

경애하는 수령 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풍이 사업에 해독을 끼칠지언정 리롭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고있는 것인가?

또 이러한 유해로운 작풍이 고칠수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는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일군들의 사상 —즉 자기사업에 대하여 당과 국가 앞에 책임지려는 노력이 부족한데있다

전후 인민경제 복구건설이 힘차게 진행되는 오늘 되는대로 말랑일하며 헛소리 만세만 부르며 유람식으로 도라다니면서 형식적으로 지도하며 책상머리에 편안히 앉아서 명령 지시문을 내리매기는 사무실적 관료주의적 방법이 조금도 허용될 수없다

경제기관 책임일군들이 자기사업에서 자기자신이 전문가가되며 자기맡은일에 능통한 사람이되며 자기자신이 일의 완전한 주인이 되는데서만 자기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의 임무는 그들자신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이 사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데 있다

우리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선진과학과 선진기술을 잘소유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인민 경제를 복구발전 시킴에 있어서의 승패를 결정하는 관건으로만 되는 것이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된다』(김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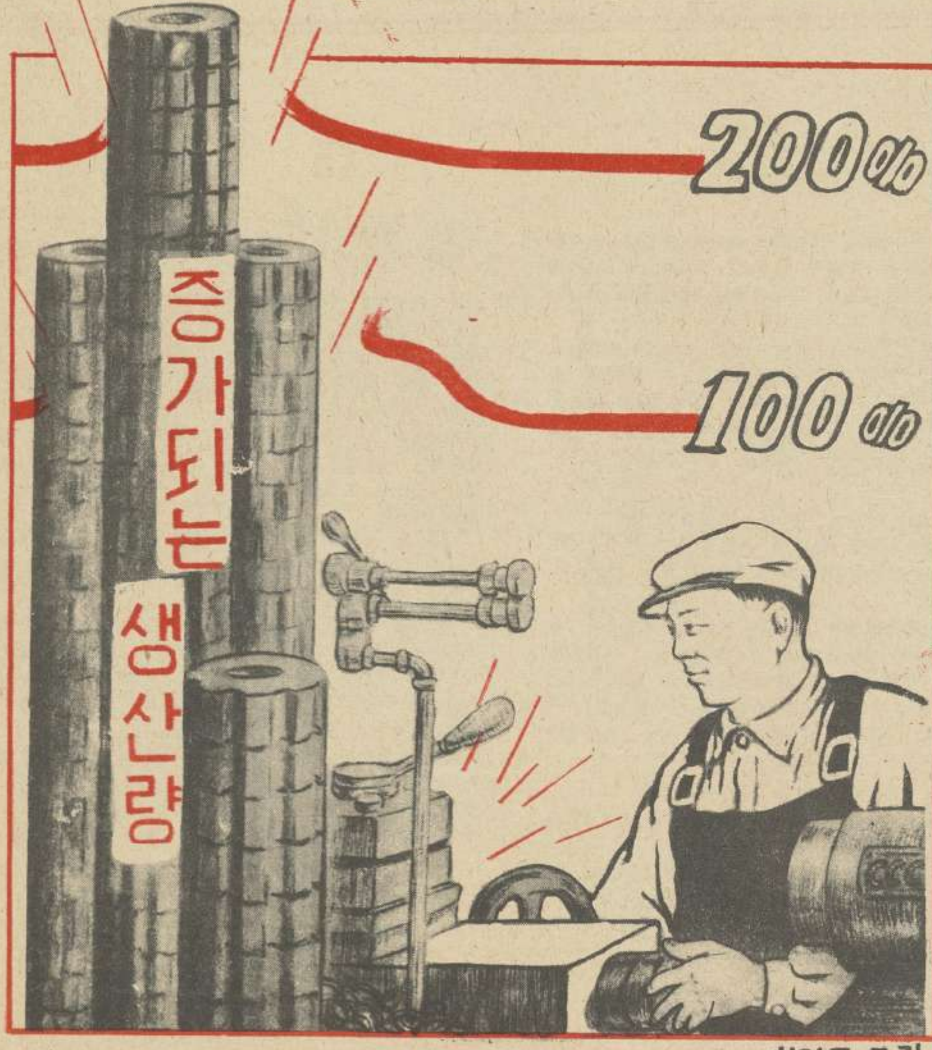
전체 경제기관 일군들은 자기자신을 맑스 레닌주의적 정치경제학 리론으로 무장하며 또한 경제건설에 대한 선진적 기술과 경험을 소유 함으로써 건설을 옳게 지도하며 건설과 생산의 속도를 일층 촉진 시킬것이다

김 봉

증산경쟁운동을 광범히 조직전개 하자!
—증산경쟁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면 할쑤록 생산실적이 더욱더 올라 간 단 말야!
—그럼! 그렇기때문에 계속부절히 증산경쟁운동을 광범하게 조직전개 해야 해!

최 한 전 그림

선진작업 방법의 일반화는생산 능률을 제고한다



최영근 그림

리춘제동무가 사업하는 공장에서는 콜레쏘브 강력 절삭법을 일반화하여 일간 계획을 36.3%를 초과 달성 하였다

창안한 기계로써

권양기 소리는 높이 울린다 몇천척 지하에서 탄차들이 꼬리를 물고 올라온다 석탄을 싣고! 『딸딸딸』와이야 토—크에잇딸아 즐탈음제을 라오는 탄차에서 쏟아지는 석탄의 상렬이!

함북 주을탄광 기계공 윤승욱동무는 자기의 창안으로 석탄을 자동식으로 적재하게된것을 다시금 기꺼워하면서 오늘도 권양기 앞에서 일하고 있다

× × ×

윤승욱 동무의 창안에 의하여 주을탄광에서는 석탄 1톤을 적재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평균 五분이 걸리던것을 1분 30초로 적재할수 있게 되였다 이로써 적재작업은 월 180공수의 로력을 절약하였을 뿐만아니라 333%로 작업능률을 올렸다

그가 적재기를 창안한것은 지난 10월이였다

탄광에서는 5천톤의 저탄을 선탄포켓트까지 단시일내에 운반할 과업이 제기 되였다

그러나 탄광에는 여기 돌릴 여유로력이 없었다

윤승욱동무는〃콘베야〃를 설치 함으로써 석탄 적재작업을 완전히 기계화할수 있다고 생각 했다

윤승욱 동무는 힘들고 품많이드는 작업을 기계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의 교시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첫 시운전에서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실망할줄 몰랐다

그는 500키로 레야함마를 비롯하여 스프링함마 그리고 탈선 탄차를 1•2분간에추어올리는 기계등 10여종의 기계를 창안할때에도 첫실패에 락심하지 않고 계속 분발한데서 성공할수 있었던 사실을 도리켜 생각하는 것이였다

윤승욱동무는 여러가지 애로를 박차고 연구를 거듭한 후 기술자들과 기계공들의 방조를 받아 드디어 기본설계 까지 세울수 있었다

〃콘베야〃부속품인〃체〃을 탄광내에 산재된 철재속에서 한로막식주어 헬결시킴으로써 부속품부족의 애로를 타개했으며 자동차〃밋숀〃을 개조하여〃감속기〃를 만들었었다 이리하여 마침내 자동식 석탄 적재기는 창안되였고 많은 로력을 절약하며 국가에 리익을 주게되였다

× × ×

오늘도 권양기 소리는 더 우렁차게울리고 석탄의 산떼미는 높아가고 있다 진달래가 활짝핀 탄광 주변의 산들을 거쳐 권양기 울향은 넓은 논밭에 펼쳐진다 기계운전실 가까히에도 진달래는 떨기 떨기 피여 붉게 물들어 지였다

윤승욱 동무는 호뭇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권양기의 핸들을 계속 력세게잡고 있다

리 승 원

박승히 그림

생산능률 제고는 3개년계획 실천에있어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생산품의 원가저하는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불가 결의 조건으로 된다

절약 저축은 인민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 시킨다

농업협동조합에서...

원광수 그림

—참 자미나게 일하고 성과도 크구나 나도 협동조합에 들었어야 하는걸………

탁윤민동무가 사업하는 공장에서는 7년간이나 목수로 근무한 함지갑동무를 6급 공으로 두고있는 반면에 자기의 견목으로 들어 온 로동자들에게는 무원칙하게 7급공으로 급수를 사정해 주는 옳지않는 작풍을 지속하고있다

장 진 광 그림

—동무 급수를 올려주겠소!
—저 보다 기술이 나은 사람들 이 있지않어요……

대장의 집에 식칼이 없다

리운학동무가 지도하는 공장내에는 주물직장을 비롯하여 선반 단야 강철 직장등 공구및 부속품들을 생산하는 설비가 완비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이공장에서는 자체생산에 필요한 공구및 부속품들이 없어서 아우성치고있다

바로 강철공장에서 "메달" 모형을 붓느라고 구슬땀을 흘리고있던 최연익동무는 중얼거리였다

× × ×

『"메달"이야 미리 미리 주물직장에서 준비해 두었다가 기계고장이 나기전에 제때에 바꾸워 끼워야지! 기계가 고장이 난다음에 기계를 멈추어놓고 부속품을 만들게되니…』

곽명걸동무도 입을열었다

『주물공장은 두었다가 뭘할셈인가?』

최연익동무는 그래도 책임을 완수해야 하겠다는 굳은 결의밑에 열심히 모형을 만들고있다

× × ×

반제품 제작기가 정상적으로 조업한다해도 기계성능으로보아 완제품까지 이르는 공정의 작업량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형편이다

게다가 반제품 제작기의 고장이 빈번하다

그러고보니 완제품까지의 공정에서 일하는 30여명의 로동자들이 기계 고장이 날때마다 야단친다

× × ×

"메달"의 마모률이 심하여 때때로 그를 교체해야 된다면 어째하여 "메달"을 미리 준비했다가 제때에 교체하지 못하는가?

타공장의 공구및 부속품들을 제작하는 공장에서 자기공장 공구및 부속품들은 왜 만들지 못하겠는가?

이곳 지도간부들이 사업을 좀더 조리있게 조직하지 않는다면 세간사리할 줄 몰으는 대장의 집에는 식칼이 없다는 웃음 거리를 어느때나 면하지 못할것이다

지 철

날인「명수」

김상갑동무가 지도하는 공장에서는 광범한 집체적 총혜에의존하여 사업에 결함을 찾아내고 그의개선 대책을 강구하며 종업원들의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시키는 지도사업을 경상적으로 진행할 대신에 월초나 또는분기말에가서 생산실적이 떠러지면 그때에가서야 깜빠니야식으로 내돌며 명령지시를 남발하는 지도방법을 유일한「묘책」으로 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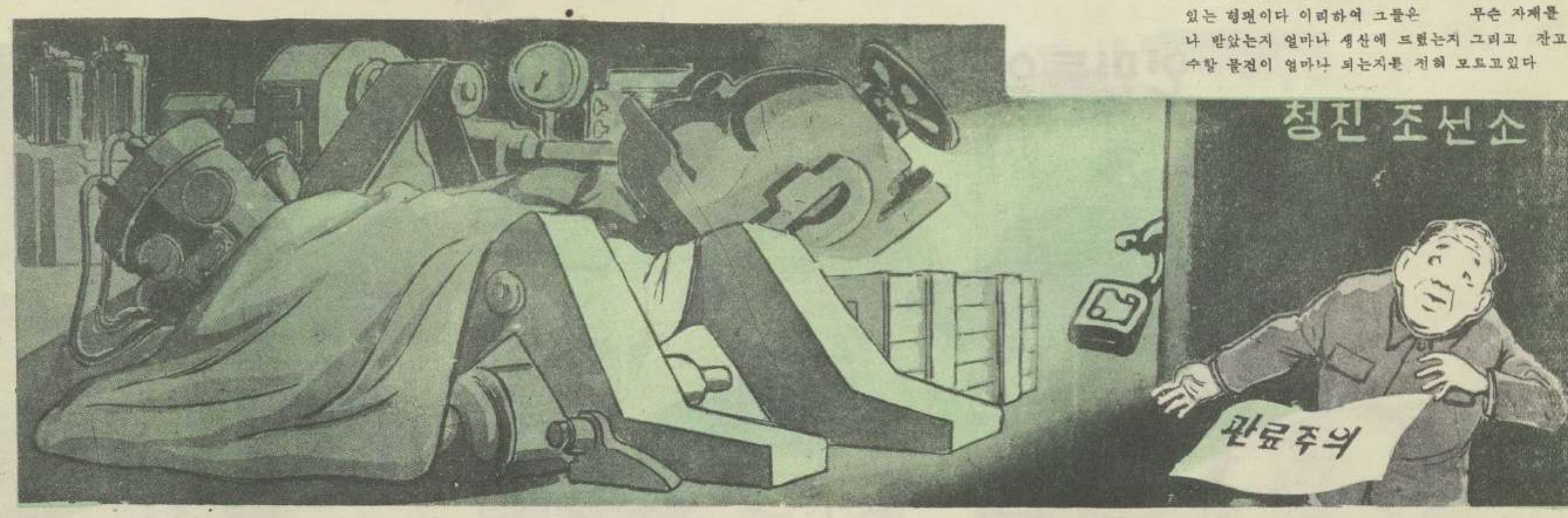
박 승 히 그림

—학습회를 몇회나 실시했소? 그리고 출석률은 몇%요
—학습회수는 월 10회나 실시하였고 출석률은 100%입니다 그런데 저…… 아는것은 없으니 야단 났수다

장 진 광 그림

이곳은 아직 밤중이다

청진 조선소 지도일군들은관료주의와 무책임성에 사로잡혀 자재취급에 있어서 초보적인 장부정리도 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무슨 자재를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생산에 드렸는지 그리고 잔고와 인수할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있다



장 진 광 그림

—아이구 이렇게 기자재가 많이 남아 있을 줄 이야
—이 기계는 인수할 것으로되여 있는데

강남제비 돌아올때…

벽에 걸린 달력을 유심히 드려다보고있던 평북 청해리 리인민위원장 맹진걸동무는 늘쩍한 기지개를 누루며 『금년에는 3월 한식이니 봄철이 꽤 늦겠군……』

옆에 서있던 생산지도원이 맞장구를 치며 나선다 『그러니 춘기 파종은 너무 서둘은 필요가 없겠군요……』

어느날 마을의 인민반장 김거종농민과 주인섭농민이 리인민위원장을 찾어왔다 『우리반 농민들은 소겨리반에 들지못했으니 거름내기와 발갈이는 어쩌니까? 다른 리들에서는 내각결정 제3호가 발표되자 역우부족은 곧 해결되였다드만요……』

소겨리반에 망라되지못한 인민반 농민들은 초조하여 자주 리인민위원회를 찾는다

그때마다 리인민위원회 일군들은 록음방송이나 하듯이 되푸리하여 말한다 『아직 봄철은 이르니까 서둘으지마오 오늘 농민들 속에서는 조기파종에 대한 생각이 유행병같이 돌고 있단 말이야……』

의자에 허리를 길게 내던지고 심심히 앉아있는 위원장 맹진걸동무앞에 한장의 통계보고서가 놓였다

『회비반출 49%! 이만했으면 훌륭한 편이야 봄철은 아직 이르니까…』

3월도 짙어가는 어느날 근심스러운 얼굴로 군무자가족 리길호농민이 리인민위원회를 찾아왔다

『위원장님! 인민위원회에서 알선해 준다는 마령서 종자는 어떻게 되였는지요……』

뜻하지 않는 질문에 놀랜 위원장은 『벌써 마령서 종자는 무얼 할해요? 아직 파종기가 멀었는데……』

위원장의 생각이 못마땅하다는듯이 옆에 있던 인민반장 리용우농민이나선다 『야로비자쩨야법을 적용하려면 반달이나 늦었습니다 그 선진영농법으로 하려면……』

『그만둘두오 그렇게 선진 영농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자체 해결 못하오……』

위원장의 불호령바람에 마을 농민들은 다시는 입을 벌리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와 버렸다

하루는 위원장 맹진걸동무의 『심중한 훈시가』 있었다

『여러분 공연히 춘경이니 파종이니 하구 떠들지를 마시요 농사는 절기를 따라야 하오 아직 파종한 곳은 없을 터이지요』

고개를 숙이고 서있던 농민들 속에서 누가 불숙 나서면서 말을 꺼낸다 『저—위원장님! 벌써 2월19일에 마령서 파종을 시작한데두 있습니다』

농민은 호주머니 속에서 신문 한장을 내놓았다

그 신문에 잠간 시선을 던지고 있던 서기장 리명도동무가 위원장을 응원하여나선다

『이 신문에 난거야 황해도니까 여기와는 대비가 안되오 기후상 차이니까……』

먼산에는 아지랑이가 담북끼고 따사로운 봄 햇빛은 철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치려는듯 리인민위원회 창문을 두드린다

위원장 맹진걸동무는 조름을 깨우려고 창문을 활짝 여러제친다

『올해는 저 들판에 멋진 풍년이 오렴』 그는 긴 활개를 쭉 펴며 공명심에 찬시선을 청해리 앞 들판에 던진다

거기에는 지난해 심었던 낟알 뿌리들이 꼿꼿이 서서 주인 나오기만 기다린다

이 들판에는 아직 종자 조차 확보되여 있지못한 마령서 밭 200여 반보가 있으며 작년 추경때 역우가 부족하여 이미 갈아서야 할 논들이 그냥 놓여 있는것을 보고도 관심을 돌리지 않는 리인민 위원장 맹진걸동무의 무사태평한 생각—

『아직 강남제비가 돌아 올때는 멀었지—봄은 그때 부터니까……』

윤 원 길

대다령1동 민주선전실

최 영 근 그림

—언제보아도 날짐승들의 집합장소로 되여 있으니…
—글세 언제나 민주선전실에 잠근쇠를 열작정인가?

봄이 왔다오 잠을 깨시오

박 승 히 그림

평북도 청해리 인민위원회 지도 일군들은 춘기파종사업의 낙후성을 퇴치 할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대신에 —농민들이 해마다 해오는 일인데 무슨 지도가 필요있는가—라고하며 춘기파종사업을 자연생장성에 방임해 두고 있다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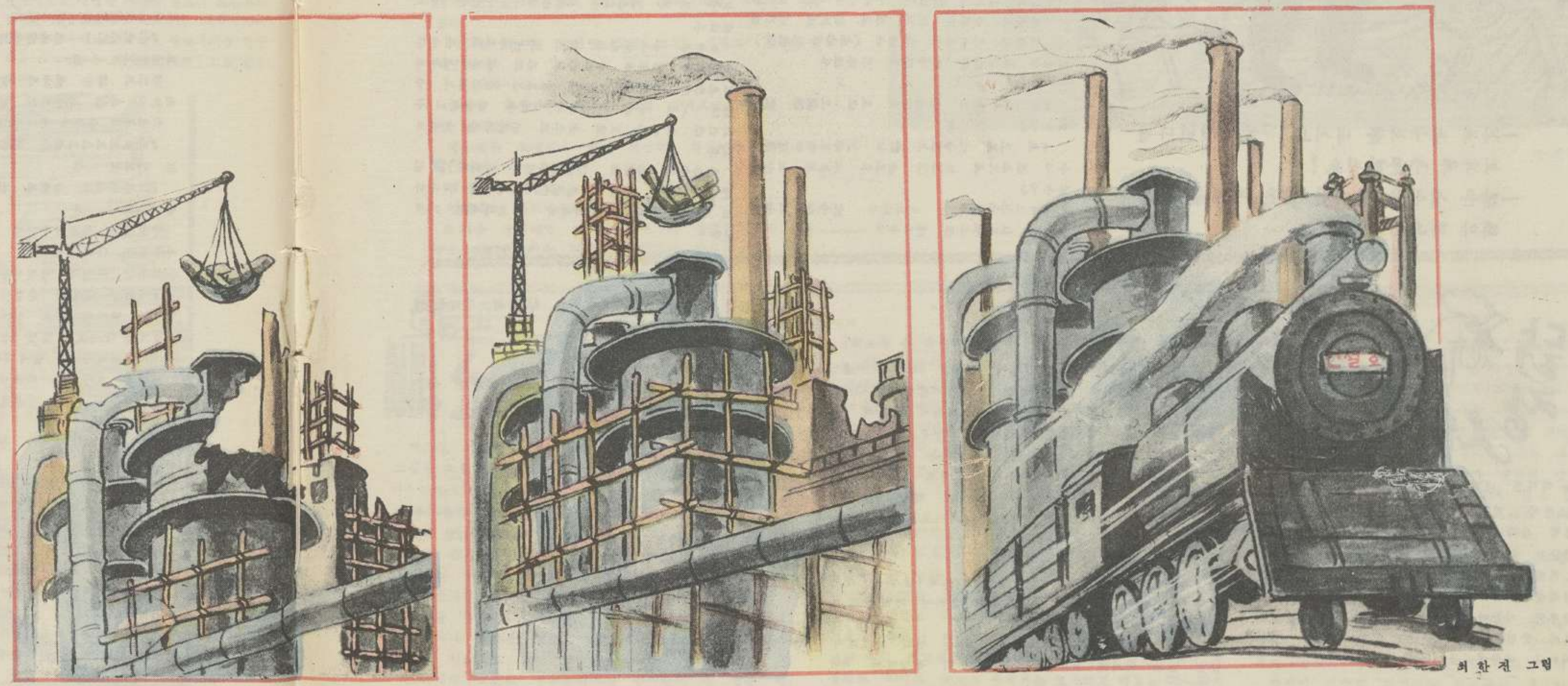
택인균 그림

로동자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 되고있다

당과 정부와 수령의 따뜻한 배려에의하여 우리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이번에 또 도급로동 임금제에 관한 규정승인에 관한 내각결정 56호를 채택하였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아! 이것 또 무엇이 예요
—내각 결정 32호에의한 50%가급금으로 직장상점에서 사온거요!

날로복구건설되는 우리의 공장기업소들!



최한전 그림

박 윤원 동무가 지도하는 공장에서는 직장에 적을둔 유능한 기능공들을 초급당위원회에 3명 공장사무실에 3명 녀맹에 1명 직맹에 3명식 다려다놓고 련락원 노릇을 시키고 있다

기계들은 기술자들을 요구한다

박 승 히 그림

장철동무가 지도하는 공장에서는 다량의 수입 자재들을 사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엄중한 사실은 "수은"을 년간소요량의 4배나 초과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수입하게 함으로써 외화절약에 관심이 없을 뿐만아니라 전후복구건설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기사장 주인전동무가 사업하는 방직 기계제작소에서 는 쏘련 및 독일에서 보내준 기계를 3차량이나 30일이경과하도록 인수하지 않고 서평양역 에 방임해두고있다

수입수출품의 취급을 개선하라

최영근 그림

—동무네 공장에온 수입품을 왜안 찾아 갑니까?
—아참! 짬도없거니와 수송도구가 없어서

자재위에서 자재부족을 외치는자

박 승 히 그림

—자재 청구서를 내시요! 국내에없다면 외국에 주문하시요!
—많은 생산을 낼려면 많은 자재를 확보해야 하오!

피장 파장

지난 4월 2일 평양역 구내 한모퉁이에서 옥신 각신 언쟁이 벌어졌다

『이런걸 실어다 놓구 접수 하라는거요?』 상업성(전 산업관리국)식료품부장의 말이다

『그럼 왜 제때에 인수하지 않고 인제 왔소?』

수산성 수매부원은 화를내며 대꾸 한다

× × ×

생선을 실은 렬차가 평양역에 도착된것은 저녁 7시였다

돌 인수 하여야 할 상업성 (전 상업 관리국) 에서는 오후 8시가 넘어도 수산물을 인수하러 나오지 않았다 수산성에서는 할수없이 현장에 수직을 조직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튿날 아침에야 상업성 (전상업 관리국) 에서는 수산물을 인수하러 나왔었다

× × ×

『고기가 물이 넘았는데 이걸 어떻게 인수해요?』

『왜 어제 인수하지 않고 지금와서 야단이우? 밤사이에 고기가 얼마나 못쓰게 되는지 알우?』

『고기가상한것이 우리들이 인수를 하루밤 늦게한 그때문이란 말이우? ………』

여보 동무! 궤짝에 잘 넣으면 고기가 썩을리 없소』

고기를 궤짝에 넣을 자재 배정 지도서까지 국가계획위원회로 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성에서 이를 아직 실시 하지않고 그냥 가마니에 넣었기 때문에 고기가 빨리 변하였다고 상업성 (전 상업 관리국) 일군은 주장하였다

한편 수산성 일군은 상업성 (전 상업 관리국) 에서 고기를 제때에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썩는다고 끝끝내 주장하였다

언쟁은 쉽사리 끝장이 나지않아 그 사이에 고기만은 점점 더 물이 넘어갔다

마침내 고기는 평양역에 도착한 후 24시간 후에야 겨우 상점 판자 위에 놓이게 되었다 그중 제 60 가마니는 3일간이나 주인을 찾고 있었다

로동자 사무원들과 도시 주민들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값싸게 공급할데 대한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의 따뜻한 배려가 수산성과 상업성 (전 상업 관리국) 일부 일군들의 무책임한 사업에 의해 원만히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성과 상업성 (전 상업 관리국)일부 일군들이 피장 파장한 언쟁은 한가할때 계속하고 위선 생선만은 제때에 수요자에게 가게하라!

장필순

의자에 길게 허리를 내던지 고 두눈을 스르르 감을때 마다 평양연초공장 기사장 민병채 동무의 머리에는 기능자를 양성할 생각이 얼신얼신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감았던 눈만 번쩍뜨면 이 모두가 흔적도없이 사라져 버린다。

『공장 형편을 보니 당장 기능자가 필요한데 부지하세월로 지금부터 기능자를 양성해서 언제 쓴단……』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던 기사장 민병채동무는 벌컥 의자에서 이러나 책상머리를 빙빙 돌았다。

× × ×

『어쨌든 계획이라도 세워 봐야지』

『1.4분기 중에 기능자 1명이 견습공 2명식을 책임지고 양성 하게하면 우선 급한 문제는 해결되고 2.4분기에 가서는 1.4분기에 양성된 기능자까지 합하여 매명당 또 견습공 2명식을 책임지워 기능공으로 양성하면……옳지 됐다 문제는 간단한걸! 나는 1개월에 서너 차례식 기술 리론 강습이나 조직하고……』

소뿔은 단김에 뽑는다고 민병채동무는 책상 머리에서 제깍 1.4분기 기술 전습 계획서를 뺀지르르하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 공장에서는

『기술전습을 해야지! 기술전습을 해야돼!』하며 소경 팔원경 외우듯 말만하고 1.4분기를 통하여 단한번도 기술전습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전습이 락후하다기 보다는 전혀 손도대지 않고 있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으니 이 공장에서 8년이나 근무한 오동운동무가 오늘까지 4급공의 자리를 면치못하는 일도 우연하지않다。

그러면서도 못살면 조상탓한다고 『워낙 기계가 복잡하게 생겨서 견습공들이 손쉽게 기능공이 되기가 힘듭니다』라고 말한다。

× × ×

기사장 민병채동무! 닭장사 구구 모양으로 달걀 깨워서 송아지 사겠다는 격으로 계획과 생각만 하면 다 되는것이 아닙니다。

(고 봉)

『아무리 봐도 호경석이란 놈이 수상해?』

박용기동무가 사업하는 직장자위대 대장동무는 어느날 자기 대원들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열성껏 일하는것 같은데……』 자위대원 한동무가 대장의 말에 의심을 품는다

『사람을 그렇게 간단히 봐서는 안되우』

자위대 대장동무는 머리를 가로 흔들며 『위선 그가 자조 오작품을 내거던! 그리고 또 정도 이상의 친절과 열성을 표시할려고 애를 쓴단말야…아무래도이상 해』

『음! 글쎄 대장동무 말을 들으니 아닌게 아니라 그렇게도 생각되기는 합니다』

대원들은 묵묵히 귀를 기우리다가 대답 하였다

『더욱히 간부들 앞에서는 비위만 마춰 볼려고 여우같이 간사하게 굴거던!』

자위대 대장동무는 더욱히 경각성을 높여가며 직장경비를 강화했다

× × ×

호경석은 원쑤들이 파견한 파괴암해분자였다

『어떻게하면 이 공장을 불 태워 버릴까?』

이놈은 늘 이렇게 악랄한 딴꿈을 꾸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출근은 남먼저 하며 모든일에 『열성』껏 일하는척 했다 회의때에는 『아름다운』 말로 열렬한듯이 목에 핏대줄을 일궈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었다 때로는 종업원들을 배수해 볼려고간교하게굴기도했다

이자는 원래 악질지주의 가정출신으로써 8·15해방이후 공화국 정부시책에 반감을 품고 있던 자다 인민군대의 일시적 후퇴시기에는 미제의 앞잡이로 애국자들에게 가진 간악한 박해를 가하며 범죄적 행동을 다 했다 정전후에는 전후 복구건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의 경력을 음폐 기만하고 이 직장에 기여든 것이다

× × ×

어느날 밤이다 그믐이 되어 사방은 캄캄하였다 사람들의 왕래는 끊어지고 밤은 지터갔다 다만 공장기계들만 밤교대 작업을 하는 로동자들의 손에 의해 쉬지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호경석은 이름을 리용하여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머니에서 석냥을 꺼내였다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핀 그는 아무도 없는것을 확인하고

—푸르륵—석냥을 켜 들었다……

그순간 호경석의 동정을 항상 살펴오던 자위대 대장이 나타났다

여우같은 호경석은 눈이 뒤집혀 황겁하여 제걸음을 쳐 도망치려고 하였다

『이자식 어딜가!』

정문에도 자위대원은 꼭 서고있다

묘지를 수시대던 여우가 홈에 와 물치듯이 이 여우같은 인간찌꺼기는 제갈데로 가고야 말았다

리송원

평양 고무공장에서는 벽과지붕에 틈이나서 비 바람칠때 마다 일을 못할 지경이며 공장내부에는 오물이 영굴고있으나 이곳지도 간부들은 하등의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생산문화에 적극관심을 돌리라

박 승 히 그림

경공업성 방직공업 관리국산하 리운학동무가 지도하는 기업소 에서는 놋제품 포금제품 단추 위장품 만들기쉽고 원가가 높은것만 만들어 금액상으로는 142~197%로 초과하고 있으나 필요한 기계 부속품 생산은 45~68% 밖에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면직물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자

박 승 히 그림

『왜 빼스가 안 올까?』

『조금전 까지는 꼭꼭 제시간에 오더니?』

빼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초조한 얼굴로 말한다。벌써 그들은 모란봉정류장에서 二〇분이나 착실히 기다렸다

이윽하여서 빼스는 왔다。그러나 五.六명 가량 태우고 자리가 텅 비였건만 빼스는 발차 하였다。

『왜 벌써 떠나요?』

『좀 탑시다。자리가 많은데…………』

빼스는 부르릉 거리고 하이얀 연기와 함께 가소린냄새를 풍길뿐—。

요지음 평양시내 빼스는 규칙있게 시간을 마춰 다닌다。그러나 때로는 일부 일군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이르키고 있다。

그리하여 곳곳의 정류소에서는 승객들이 꼭 열을 지어 이마에 줄음살을 찌프리고 있다。

전후복구건설사업에 시간을 다투는 승객들 속에서

『빼스를 좀 탑시다!』

이런 말들이 요지음 종종 들리고 있다。

인민들은 쏘련인민들이 보내어준 최신식 빼스의 그 아렸다운 자태를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서원해 하거늘 평양시내를 달리는 빼스들은 무엇때문에 인민들의 이 마음을 가득하니 하여 주지 못할까?

다른 사람보고 묻기전에 이 까닭을 큰 두눈으로 제일 잘 보고 아는 순진한 빼스더러 대답하라고 하라!

× × ×

빼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한다。

『낸들 어이 하겠소! 우리 자동차 사업소 김치진과 신인식동무는 내가 본평양 서평양 감흥리 시발점들에서 떠날때에 일을 손쉽게 하기위해 아무러한 시간조절도 없이 무턱대고 거저 주먹을 벌쩍 들군 떠나라고 야단이지요 할수없이 떠나고 나면 운전사동무는 또한 날더러 남의 차의 꽁꼬리를 따르자마자 앞서자고 멀렁 거려요 규정대로 20키로 속도로 달리기는 고사하고 때로는 25~30키로까지 내여 달리고 나면 난 막 황소숨을 뿜지요, 얼마전에도 리원식운전사가 이랬어요, 그런가하면 어떤 운전사동무는 또한 무턱대고 쇠를 꽉 잡거놓아 나를 꼼짝못하게 하여 놓고선『기다리라』한마디 하고 가 버리는걸요 얼마전에 감흥리 종점에서 50명이상의 승객이 나를 어르만져 줄때도 강명식운전사는 아침 식사를 하느라고 40분이나 나를 그렇게 했어요。난 또 이런것을보았지요 차장 정종렬 동무가 승객들에게서 받은 표를 찢지 않고 간수하기에 무엇을 하려는가 했더니 승차권 판매원인 차길순이에게 주어 다시 팔게 하지 않아요 하루 300원식 호박잡았다고 소군 거리기까지 하더군요』

× × ×

평양자동차사업소 소장 박태원동무! 당신이 지도하는 사업소의 빼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글쎄 어떻게 합니까?

노염마시요 빼스는 순진하고 무척 정직합니다。그빼스들은 또래되 생겨날때부터 주먹치기 일군이나 되는대로 해먹기꾼이나 참봉같은 『어른』들과 사귀본일이 없답니다。

당신이 귀중히 여기시는 빼스들의 진정한 말을 참작하시고 당신이 지도하는 사업소내의 부분적 일군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사상 찌꺼기를 송두리채 뽑아 치웁시다。

원 철

구라파에서의 집단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합의에대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려는 쏘련의 이니샤티브는 국제여론의 환영을 받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지배층은 놀라고 있으며 혼란에빠지고 있다

구라파에서의 집단적 안전보장을위한 쏘련제안

리영순 그림

도적놈은 밝은곳을 싫어한다

자기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적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정의의 무력 앞에 침략자들의 망상이 파탄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다!

면치못할 길

장진광 그림

나바르안의 파탄

지금까지 인도지나 인민들을 반대 하는 원정군을 번갈아 지도한 불란서의 여러 장군들이 상당한『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승리』에 대한『전투 보고』를 작성 함에 있어서『상당』한 솜씨를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매번『전투보고』에는『포위』『구축』『절단』『패주』또『섬멸』의 술어가 꽉 차있다 전쟁마당에서 월남 인민군부대들을 격파할 힘이 없는 식민지 략탈자들의 전략가들은 조이장 위에서 만은 월남 인민군 부대들을『섬멸』하고 있는것이다

새로 취임하는 원정군 사령관들은 취임 즉시로 서로 앞을 다투어 콤뮤니케와 성명을 발표 하기에 열중하였던 것이다

『적군은 결코 메콩강까지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살랑장군은 언명 하였다

현사령관 나바르는『우리의 성공은 멀지 않다』고 호언 장담하였다

만일 이와같은 말공부가 매일 적지 않은 인명을 빼앗아 가고있는 동혈적 전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의 웃음꺼리에 지나지 않을것이다

『불개』작전 또는「갈매기」작전을 수행하고『롤의』의 락하산 기습을 조직하고『섬멸적공격』을 감행하고『승리』를 쟁취하고「성과」를 달성하면서 오늘날 불란서 원정군대는 최후 운명에 직면 하고 있다

월남에서 인민군부대들은 최근 디엔비엔푸시 근방에서 더욱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한편 파테트 라오에서는 해 방군부대들이 지난 1년동안에만도 10만 평방킬로메터의 지역을 해방시켰다

살랑장군의『금지』를 무시하고 그들은 메콩강까지 도달하고야 만것이다

크메르에서는 빨찌산들의 활동이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바 이것은 확실히 나바르장군이『머지 않은 성공』이라고 부른 바로 그것이다

× × ×

불란서 식민지략탈자들과 미국 간섭자들은 인도지나에서의 전쟁을 계속하기위하여 소위『나바르안』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있었다 18개월이내에 인도지나에서「결정적」승리를 쟁취할것이『예견』되였던『나바르안』은 불란서인들이 월남에서 전투행동을 단념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 하고 있던 미국 간섭자들의 사수밑에서 나오게 되였었다

이 안은 구라파로 부터 2만명의 불란서 증원군의 파송 54개 대대의 바오다이 괴뢰군대의 설치, 증가될 미국『원조』를 예견 하였었다

그리하여 불란서는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으로 3억8천5백만딸라를 받고 이 안을 실시 하게 되였다

그러나 이 안의 작성자인 인도지나 주둔 불란서 침략군 사령관 나바르는 그 목적을 달성 하 지 못하였다

나바르는 인도지나 전선에 투입한 1953년 5월부터 1954년 3월에 이르기까지에만도 4만4천여명의 병력을 상실하였다

나바르는 병력부족을 보충하기위하여 괴뢰군 부대를 경모하기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그 의 실천에 있어서도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였다

1953년 9월에 작성한 54개대대의 괴뢰군대 편성계획 중에서 27개 대대만을 조직할수 있었을 뿐이며 그것마저 오합 지졸인 강제로 끌어낸 지방 괴뢰군부대들이였다

계속되는 섬멸적 타격과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투항병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된 사실은 불란서및 미제국주의자들의 커다란 불안과 위구로 되지 않을수 없다

전투에서의 불란서군의 패배 군대사기의 저락 괴뢰군 병사들의 집단적 탈출 이모든것은「나바르안」의 파탄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사실은 나바르 자신도 인정하고있다 최근 그는 마지못해 월남 인민군의 공세가『어느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우리들은 모든것을 유지 할수 없다』라고 부언 하였다

나바르안의 실패에 당황망조한 불란서 국방상 플레방 총참모장 엘리등 불란서 군사 지도자들은 황급히 인도지나에 달려와서 나바르안에 수정을 가하였으며 또 불란서 지배층은 총참모장 엘리를 워싱톤에 까지 파견하여 미제의「원조」를 애걸케 하였다

불란서 지배층들의 애걸을 구실로 미국 간섭자들은 인도지나 전쟁에 직접 참가하기위하여 더 많은 공군 인원을 파송하고있다 동시에 그들은 태평양 방면 미군 륙군 사령관 오다니엘을 소위 사절단 단장으로 임명하여 불란서의 전쟁을 더욱 확대 시키려 서둘고있다 그러나 불란서 및 미국고관들의 빈번한 인도지나 왕래도 나바르안의 실패로부터 구원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엄연한 력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할 대신 그들은 자기들의 절망적인 형편을『개선』하기위하여 단말마적인『구급책』을 강구할려고 날뛰고 있다

그러나 월남에서 인민군부대들의 력량이 부단히 장성 강화되고 있는 엄연한 사실과 최근 디엔 비엔 푸에서 불란서 침략군이 당하고 있는 참패는 미 불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새『나바르안』도 낡은『나바르안』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되리라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줄 뿐이다

신 영 숙

푸에르토 리코 인의 원자탄

오늘은 백아관이 떠들썩하는 날이다

아메리카 의회가 소집되였다

아메리카의 장광설이 요란히 울린다

오크라호마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벨쥐써가 연단에 올랐다 와르르 박수가 오른다

벨쥐써의 고함소리는『전인류를 위하여, 평화, 진리, 량심에 대하여』우렁찼다

연단에 오르는 사람마다 모두『아름다운』형용사의 라렬이다 2백명 하원의원, 저마다가『인류의 구세주』를 자처한다

그런데 그들의 심장은『아메리카의 발전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칼포니아 농장주로서의 산판알과 시카고 통조림공장 금전출납부와 쌘프란시스코 부두 해운회사의 금고열쇠가 머리에 떠 오른다 뉴욕 주식 취인소의 오르락 내리락 시세표가 그들의 심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 탐욕스런 딸라의 주인공들이『평화, 진리, 량심』을 외친다 백아관이 들먹거리며 장광설의『박격포』가 우박친다

――아메리카의『목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않으려는 놈은 과연 어느놈이냐?

인류는 마호멧트의 교훈을 명심해야한다 코란의 진리를 믿지않으려거든 칼을받아라 마샬군도내 에니웨토크 80마일 서방의 비키니섬에서는 수소탄의 새시험이 진행되였다 위력은 지구가 꺼질지경이다

『아메리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지 않는자에게는 모주리…수소탄이다――

단상의 베블리의원의 거센 목소리, 아메리카식 과장된 제스츄어다

× × ×

총성이 울렸다

방청석으로부터였다

푸에르토리코 녀성 로릿타 레브론의 신호탄이였다 묘령의 녀성의 발사를 신호로 푸에르토 리코의 다른 두 청년의 권총란사가 개시되였다

세 청년남녀는『자유 푸에르토 리코 만세!』를 절규하였다

아메리카의『황금과 수소탄의 힘』을 신앙하는 2백명 흉직한 몸뚱어리들이 뎅굴기 시작한다 50메터 거리의 권총발사앞에서「대아메리카」가 곰부림친다

수천대 항공기의 대편대 비키니섬의 수소탄시험결과의『위력』에 의거하여 장광설을 뽐내던 젠슨의원은 책상밑으로 평노롬하다가 궁둥이에 탄환을 받았다 너무 황겁하여 손발로 네발걸음하던 데이비느의원은 오른편다리에, 로비쏘의원은 위편 허북다리에 각각탄환을 받았다

『해방』을 웨치던 베들리의원은『자유』를 웨치는 푸에르토 리코인들의 탄환을 두발이나 가슴에 맞고 영원한『해방과 자유』를 얻었다『백아관 아메리카의 목소리』를 자랑가 삼아 즐기잘 하던 하원의 뚱뚱보 누위 벨체는 심장 마비를 일으켜 넘어졌다

이상이 얼마전 미국 하원에서 발생한 일장 활극의 몇 컷트이다

이 놀라운 소식은 곧 범미회의에 참석차로 카라카스에 가있던 덜레스 국무장관에게 전해졌다 그리하여『대아메리카』의 국무장관이『평화회의』장으로장갑차를 타고 출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농림부장관 벤손과 내무부장관 막께이는 위트긴군도를 경유하여 푸에르토 리코를 들리려면 여정을 갑짜기 변경하여 불이야 불이야 아메리카의 지하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소탄을 든 아메리카『신사』들을 네발로 기게한 푸에르토리코 청년들의 권총사전을 62세의 푸에르토 리코인 칼포스는 엘 임파르시알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다음과같이 말하였다『고상한 영웅주의 행동을 취한 우리 동족의 롤리타 레브론과 기타 인사들은 자기들의 원자탄을 가지고 미국이 모든국가들의 독립및 푸에르토 리코의 독립을 존중시하여야만 한다는것을 미국에 대해 가장 용감하게 통고하였다』

푸에르토 리코 인의 원자탄이「대아메리카」의 백만장자들을 놀라게 했다

김 현 석

미제와 리승만은 제네바 회의를 파탄시키려는 음모에 광분하고있다

박승히 그림

졸개는 상전을 위해 짖는다

아이젠하워의「그림극」

리영순 그림

아이젠하워는 남조선에서 소위 미군 2개사단을「철거」한 다는 성명의 그림극을 펼쳐놓고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정모중에있는 괴뢰군의무장을 강화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리승만 으로 하여금 미군 영구주둔을계속 간청시킴과 아울러「북진」발광을 떠들게 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소위 산업부흥을 위하여라는 구실밑에 「외국자본 도입법」을 「국회」에서 채택하고 월가 상인들의 자본을 끌어드리고 있다

배(梨)주고 속빌어 먹는자

미제의 수술대

미제는 만신창이된 리승만을 자기들의 수술대에 올려놓고 부러진 다리를 다시 마출려고 애를쓰며 다시 전쟁 도발 음모를 위해 다량의 무기를 반입 하고 있다

「개싸움」

우리나라 남반부를 미국 자본가들에게 팔아먹고 그야말로 미친개가된 남조선의 매국적 괴뢰 도배들은 조선 침략전쟁에서의 미제의 참패와 리승만 괴뢰정부의 정치경제적 파탄및 드높아가는 인민들의 압력등에 의하여 차츰 형세가 어지려워지고 수습할수없는 혼란상태에 빠져들어감에 따라 그들사이의 개싸움이 더욱 커가고 있다

월가 장사군들의 출장소가 되고만 그 초라한 남조선 괴뢰정부안에서 그렇고새고 제각금 안대목자리를 차지해보려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오른 김성수 계렬과 리승만 계렬간의 추잡한 암투는 정전을 전후하여 더욱 격화되였었다 이미 전쟁시기에 로흉 리승만은 박해와 루욕의 방법으로 김성수를 비롯한 「민주국민당」의 두목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괴뢰정부 행정, 군사, 경찰, 재정, 금융등 각부문에서 몰아냈으며 정전이후에는 자기가 소위 「총재」로 있는 「자유당」 내부에서 까지 반대파의 숙청을 진행하여왔다

상전 미제의 조종하에 늙은주구 리승만이 「정전결사반대 운동」을 조작하고 「포로석방」의망동을 감행하고 있을때 「민주국민당」 소위 사무총장 조병옥과 선전부장 김준연이는 소위인민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포로석방」을 「반대」하는척 표방하였으며 이에대하여 리승만은 보복수단으로써 「민주국민당」 본부를 습격파괴하고 조병옥과 김준연에게 박해를 가한바있다

리승만의 가혹한 테로폭압에 위축된 「민주국민당」 내일부 분자들중 소위기호파 13명은 작년11월 9일 황접히 「민주국민당」에서 탈퇴하여버렸다 이때문에 『민주국민당』은 괴뢰국회내에서의 「단체교섭권」 까지 상실하고 파멸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후 김성수과 「민주국민당」은 다시 리승만역도의 박해와 폭압을 받아가면서 당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광분하여왔다

다른방면으로 리승만이가 「총재」로 있는 「자유당」 내에서도 리범석계렬은 작년 5월 「제2차전당대회」 이후 「당」 내의 리승만직계 세력을 제압하고 일시 「자유당」 내의 령도권을 탈취하여 만년전제를 꿈꾸는 로구 리승만의 독재적 지위를 불안케하였다

남조선 통신들의 보도에의하면 리승만 매국도당사이에는 래 5월20일에 실시한다는 소위 괴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추악한 개싸움이 더한층 벌려지고 있다 한다 5월20일로 「선거」가 결정되자 리승만 매국역도들은 최근 1개월동안에만 10여차례에 걸쳐 소위 「선거에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미제의 침략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자기의 심복들만을 「선거」 하라고 위협공갈하는 동시에 흉악한 반인민적 살인법령의 조직과 경찰 「간부」들의 전면적 개편으로 팟쇼적 테로를 강화하고있다

한편 「자유당」에서 축출된 리범석계렬도 리승만 역도의 박해를 피해가면서 「선거」에서 다수를 획득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리승만 역도는 박해와 폭압으로 「자유당」 간판을 자기의 색갈로 칠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자유당」 내부에는 의연히 리범석계렬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다。

리승만국회에는 형식상 리승만파인 「자유당」 의원이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리승만 역도가 자기의 졸개들만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괴뢰국회에 제출한 흉악한 살인법령인 「특수선거범처벌법」 이 거부되고 김성수와 「민주국민당」 이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 이 도리혀 「자유당」 의원들의 찬동을 얻어 다수결로 통과되였다

리승만은 자기의 졸개로만 믿고있던 「자유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있는 괴뢰국회가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의 의사를 거역 배반하고 나왔기때문에 초조와 불안에싸여 더욱 발광하기 시작하였다

4월7일부 합동통신에 의하면 리승만은 괴뢰행정부에 소위 「국회해산권」을 줄것과 자기의 지시에 추종하지않는「국회 위원」 들에대하여 「선거자의 명목으로」 소환할수있도록 괴뢰정부의 헌법을 고치겠다고 「서약」 하는자만을 선거하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반동진영내부의 이와같은 대립 암투는 괴뢰정부 「행정부」 와 「국회」 와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키고 따라서 괴뢰정부의 행정체계를 혼란 마비시키며 혹심한내부 부패를 더욱 초래하고 있다

이럼에 따라 괴뢰정부 「고관」 들과 매판자본가들이 결탁한 더러운 사건들은 일일히 렬거할 수 없다 매관 매직, 소위 「공무원」 의 직권남용 사기횡령 문서위조등 범죄행위는 그들의 공인된 생활수단으로 화하고있다 그리하여 리승만 괴뢰정부는 더욱더 인민들로부터 고립되여가고 있다

검 손

가진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인민들의재산을 략취해먹기에 눈알이 뒤집힌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은 이번에 또 인민들의 재산을 「적산」 이라는 구실을 부쳐 「미군점령비」 와 「괴뢰군 군사비」 에 충당할목적으로빼앗아가고 있다

닥치는대로 먹어대는
미제와 리승만

박승히 그림

좋은 쌀은 빼앗아가고

—개새끼들 인민들에게서 좋은 쌀은 빼앗아 일본으로 보내니… 천하 악귀같은 놈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참상

—전기세 왜안내!

—언제 전기를 주었기에 세금을 내란 말이냐?

—오우! 전기는 켜고 못켜고 간에 국민의 의무로 세금은 내야해! 안내면 알지

백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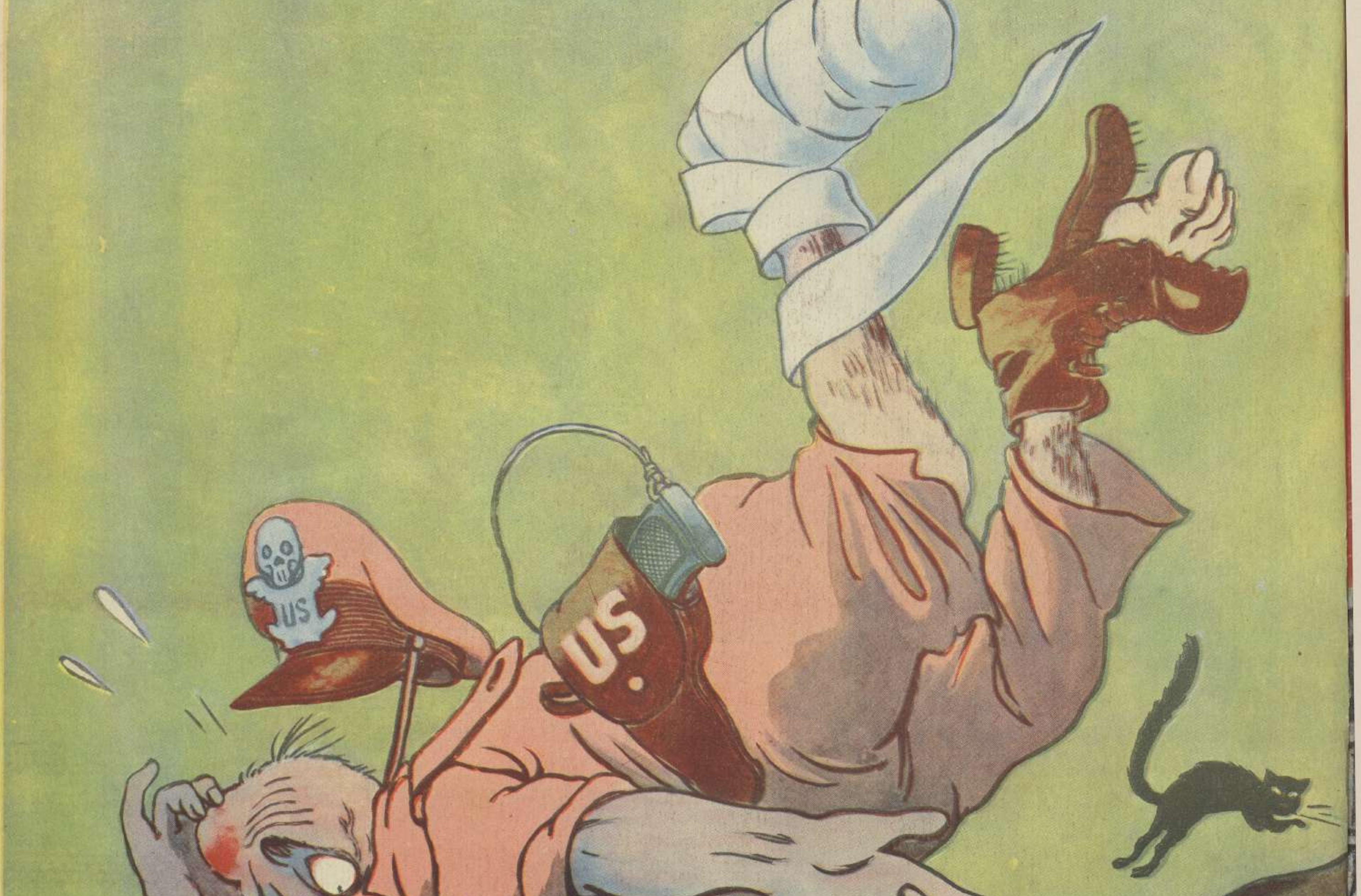
—전기는 제놈들만이 쓰고 세금은 우리더러 무러라? 개자식들……

백인균 그림

—빨리 까라 까! 미군군사 훈련이다! 어물거리면 총살이다 총살!

—아이구… 또 실패… 이망신을 어쩌나—

미제와 리승만 괴뢰들의 발기로 소위 「아세아 반공민족 대표회의」를 조작하려던 「반공극」은 보잘것 없는 일장의 졸렬한 희극으로써 조소와 멸시 가운데 도중에서 막이 닫치고 말았다



RETURN TO
THE LIBRARY OF CONGRESS
DIVISION OF ORIENTALIA

책임주필 장진광
발행소 활살(시사만화잡지)사
인쇄소 평양특별시 국립종합인쇄소
총배포처 체신성 출판물 관리국
인쇄 1954년 4월20일
발행 1954년 4월 25일
ㄱ—50254 (정가 90원)